

안철수의 대반격...대선정국 술렁

“유력후보 불출마 협박” 과문 확산 속

안철수-박근혜 정면 대결 시작 분석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 아관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에 ‘대선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안 원장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력한 범야권 대선후보에 대한 유례없는 협박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파장을 겪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시의를 표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안철수 원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면 대결이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의 이따를 겸정 공세에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안 원장이 ‘불출마 종용’ 의혹을 폭로하며 대선 출마에 앞서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원장 측은 최근 ‘재개발 짓지’, ‘포스코 스톡옵션 행사’ 등 일단 폭로성 언론 보도의 배후에 새누리당이 있다는 의구심을 피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불출마 종용’ 의혹이 안 원장과 민주통합당의 연대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반(反)박근혜 연대’ 구축이 절실했던 상황이고 무소속의 안 원장 입장에서도 향후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유신산당의

집결지이자 응서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근거해 집권하겠다는 신종 쿠데타 세력임을 드러낸 일”이라며 사실상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박 후보와 안 원장의 팽팽한 지지율 형평이 깨질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민대통합 행보로 상승세를 보이던 박 후보의 지지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 원장 측의 폭로에 박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기본 입장과 함께 금태섭 변호사와 정준길 공보위원의 친구 관계를 부각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

해 “안 원장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친구 간의 사적 통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며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도 높아 조만간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원장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어떻게 판명되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안으로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대선 정국은 더욱 출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DJ고향 방문 박근혜 ‘호남구애’

태풍피해 신안·진도 과수원·양식장 찾아 주민 위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6일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박 후보는 이날 태풍 ‘볼라벤’과 ‘데빈’이 강타한 신안·진도를 각각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폈다.

박 후보는 이날 낮 대풍 피해를 입은 신안군 압해읍 복록리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농장을 운영하는 김선임(73)씨를 위로했다. 박 후보는 ‘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상심이 크시죠. 얼마나 막막하고 기가 막히느냐?’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고, 김씨는 ‘살길이 없다. 여기까지 찾아줘서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피해 농가 방문 이후 박 후보는 마을 주민들과 10여 분 간 대화를 나눈 뒤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전복양식장 피해 어가를 찾았다.

양식장 주인이 태풍에 따른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다시 일어서야 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7월 나주와 광주를 각각 방문했던 박 후보의 이날 호남행은 ‘100%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속도를 붙이고 있는 국민대통합 행보의 연장으로 읽

힌다.

특히 전남의 첫 방문지를 고(故) 김 대중(DJ)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으로 택한 것에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풀이다. 박 후보 진영에서는 그가 대선 후보로서 고립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소참배, 이희호 여사 예방에 이어 DJ의 고향을 찾아간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태풍 피해 농·어가를 방문해 농·어민을 위로한 뒤 광주에서 열리는 ‘2012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하기 위해 곧장 광주로 향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 한 광주에서 열리는 문명면 집중지 6차선 도로 45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균 70만 원에 평균 15년 만기로 100년 만기로 대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향희 변호사 로펌 사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을계인 서향희 변호사가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빛’을 그만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삼화저축은행 법률 고문 전력 때문에 이 저축은행의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서씨가 로펌을 사직함에 따라 박 후보측이 대선 본선을 앞두고 주변 친인척 관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새빛 관계자는 “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는 물론 법무법인 자체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확한 사직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 변호사는 박 후보의 친인척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위기의 박지원

검찰, 보해저축銀서 3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늦어도 다음주 박 원내대표 기소 가능성 높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치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였던 임경우 전 보해저축 회장에게서 “박 대표에게 3천만원을

여기에는 양경숙 전 라디오 21 대표의 공천 현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체면을 구겼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박 원내대표는 공천 현금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양 전 대표와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박-문(이하찬-박지원-문재인)연대론’도 박 원내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2선 후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주류 의원 20여명은 오는 11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에 착수했다.

김동철(광산 갑), 황주홍 의원

(영암·강진·장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정치적 내공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위기 국면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박-문(이하찬-박지원-문재인)연대론’도 박 원내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2선 후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주류 의원 20여명은 오는 11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에 착수했다.

김동철(광산 갑), 황주홍 의원

그는 이어 “박 후보가 정말로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에 진정성이 있다면 보도성 행보를 하지 말고 양당 협의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합의를 끌어내면 대선이 흉흉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값등록금·무상보육 논의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갖자

민주 이용섭의원 제안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6일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반값 등록금과 양육수당 확대를 요청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야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문제”라며 “정책위의장끼리 만나 협의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표결’을 우회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앞으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 처리된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3월 15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흥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천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60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 11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증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업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이지공인중개사

임야, 토지, 전답

- ▶ 광주 동구 선교동 벤처밸리단지 대지 1014평(3535㎡) 사정상 금매 대로 35m 도로접함, 투자기금 2억, 매기21억
- ▶ 광주 서구 서면 초 방리 산 14-1일야77,727㎡(23,512평) 평가 평당 1,430평) 매기 평당 1,421평 매기평당 100만
- ▶ 나주시 문평면 집중지 6차선 도로 45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당 15만원
- ▶ 광주 동구 수기동 6차선 도로 40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당 15만원

기타물건 다량보유

매 매, 교 환 (토지, 상가, 임야)

- ▶ 장성 남면 2층주거지역 대지 660㎡(200평) 평당 50만 원 고주택공정 적합
- ▶ 담양 분신면 대축리 고가주택 46,596㎡(1,412평) 매기평당 100만
- ▶ 나주시 문평면 집중지 6차선 도로 45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당 15만원
- ▶ 광주 동구 수기동 6차선 도로 40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당 15만원

매기 평당 15만원

상가 주택등

- ▶ 장성 북면 2층주거지역 대지 900㎡(270평) 평당 50만 원 고주택공정 적합
- ▶ 담양 분신면 대축리 고가주택 46,596㎡(1,412평) 매기평당 100만
- ▶ 나주시 문평면 집중지 6차선 도로 45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당 15만원
- ▶ 광주 동구 수기동 6차선 도로 400m 접합 15,638㎡(4,730평) 매기평당 20만원 평당 1